



“기쁨 두배인 날!” ...

제35대 이사장 영배스님의 취임 고복식이 25일 오전 11시 정각원에서 거행됐다. 한편 이날 에베레스트 횡단을 성공적으로 마친 박영석(체교91졸) 동문이 귀국해 고복식을 찾아 함께 축하했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파워엘리트 장학프로그램 지원 자격 결정

지원 대상학교 2007년 9월 입학 대상자부터 ... 세부사항은 11월 중 공지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프로그램’의 가락이 잡히고 있다. 이번 결정된 사항은 주로 지원자격으로서, 이번 프로그램의 첫 대상인 2007년 가을학기 입학예정자 선발의 경우 △우리학교 2003학년도 2월 이후 학부 졸업생 또는 2007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 △지원 대상학교 2007년 9월 입학 대상자 △학부 성적 3.5 이상 △CBT(Computer Based TOEFL) 및 GRE 성적 제출 △자기소개서 및 학업지도 추천서 제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 육성을 위해 이 프로그램의 신설을 지난 해 10월부터 논의해 왔다. 이는 우수 인재를 엄선해 미국 아이비리그 등 세계 최고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프로그램’은 로스쿨과 MBA를 제외한 미국의 분야별 대학원 평가 순위 상위 5위 이내의 대학에 입학하기를 취득한 자 또는 입학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1년에 약 10명씩 향후 10년간 총 10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고, 매년 최대 5만 달러를 3년간 지원한다. 박사학위까지 취득할 경우 우리 학교 교원 채용 시 우대할 예정이다. 분야별 대학원 평가 순위는 미국 대학 평가로서 최고권위를 가진 U.S. News & World Report에서 실시하는 대학원 평가

를 따르며, 이 순위는 매년 그 해의 전년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평가기준은 Engineering, Medicine, Education, Social Sciences & Humanities, Public Affairs, Fine Arts, The Sciences 등의 7개 분야에서 세부전공과 순위를 인정한다. 또한 석·박사 학위를 위한 유학기간은 최대 7년으로 제한하며 제한기간 내 박사학위 미취득자는 장학금을 회수한다. 지원 자격이 결정됨에 따라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프로그램’은 오는 11월 우리신문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파워엘리트 장학프로그램 시행이 처음 알려지면서부터, 현재 학생들

의 관심 또한 크게 모아지고 있다.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한 졸업생은 “재정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덕분에 용기가 생긴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 대학의 경우 11월이나 12월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된다”며 지원준비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선발기준과 일정 등이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파워엘리트 장학위원회의 위원인 손재영 진로교육상담팀장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사항의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은 진로교육상담팀에서의 상담 등을 통해 미리미리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교육부 수시 1학기 폐지 결정

2008학년도부터 적용 ... 전형방법 다양화 필요

2008학년도 대입부터 각 대학의 수시 1학기 모집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해 온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설동균)가 수시 1학기 전형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했다. 수시1학기 폐지 논란은 이번에만 문제된 것이 아니다. 지난 2004년부터 교육부에서는 수시1학기 합격자가 대학·대입생도 아닌 상태로 있는 폐단을 지적해, 폐지할 것을 논의해 왔지만 당시 대학과 고교의 의견 수렴 결과 2006년부터는 모집시기를 여름 방학으로 늦춰 진행해 왔다. 그러나 수시1학기 모집이 해를 거듭할수록 학문간 우열현상 조장, 실업계 고교와 대학 간의 부적절한 거래, 전문대학의 신입생 편법 유지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어 다시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 대학에서는 신입생을 유지하는 데 수시 1학기 모집이 중요하게 작용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입학처에서는 “1학기 수시로 인해 고교 학교 분위기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많고 대학 측에서도 1년에 전형을 3번 치러 행정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성균관대 입학관리팀도 “폐지된 1학기 수시 인원을 기존 2학기 수시 전형에서 같이 뽑기로 결정했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석림동문회·조계종 교육원, 발전기금 3억원 기부

우리학교 석림동문회(회장=법타스님, 은해사 주지)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원장=정화스님)은 지난 25일 상록원에서 열린 ‘석림동문회 임시총회 및 신입생환영회’에서 건학 100주년을 맞아 학교발전기금 3억원 기부증서를 홍기삼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신입이사장 영배 스님도 참석했다. 석림동문회 회장 법타스님은 기부증서를 전달하면서 “건학 100주년을 계기로 대한불교조계종, 석림동문회 스님 일동이 학교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부한 발전기금 3억원 중 2억원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 1억원은 석림동문회에서 기부했으며, 우리대학 준비장학생 수행관 건립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참사람봉사단 하계 해외대학생 단원 모집

참사람봉사단(단장=조의연·영어영문학)은 하계 해외대학생 단원을 모집한다. 이는 작년 우리학교 학생들이 사천대학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한 데에 이어서 우리 학교와 자매대학인 중국의 사천대학 학생들을 초청해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봉사활동 내용은 한글교육, 컴퓨터, 태권도, 사물놀이, 레크레이션, 노력봉사 등이며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의 일정으로 이루어진다. 총 30명을 선발해 여름계절학기 사회봉사 1학점을 인정해준다. 선발기준으로 △중국 학생 홀스데이 가능자 △각 전문분야별 봉사회 회원 △봉사활동 경력자 및 특기자 △중국어 능력자를 우대한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내일까지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2학기 우수장학금 신청 다음달 2일까지

학생처(처장=조의연·영어영문학)는 2006학년도 2학기 우수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장학금 신청서, 사회봉사인증서, 지방세 특별(미)과세 증명서, 기타 가정형편 증명서류를 학업지도 교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1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평균평점 3.0이상인 자이며 장학금액은 등록금의 30%이다. 평가기준은 △학업성적=50% △사회봉사=10% △가정형편=20% △학업지도교수 평가=20%이다.

강정구 교수 1심 공판에서 유죄선고 받아

지난 2월 직위 해제된 강정구(사회학) 교수가 지난 26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인터넷 매체에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란 취지의 글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강정구 교수에게 선동적 친북 주장을 폈다는 이유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강 교수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수직을 잃게 된다. 학교측은 “법원의 공식 통보를 받으면 인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유죄가 확정되면 퇴직사유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주의 동국인

학술대상 수상 강태원 교수 연구지원비 전액 장학금 쾌척



오늘도 과학관 양자기능 반도체 연구센터에는 24시간도 모자라 새벽녘까지 불을 밝히며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원들이 있다. 그들의 중심에는 바로 강태원(물리학) 교수가 있다. 그는 “미지의 땅에서 무언가를 이뤄 내려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에게 주는 여유와 가족과 오붓하게 보낼 시간을 포기했다”고 답답하게 말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강교수는 작년 동국학술상에 이어 올해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동국학술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연구하느라 고생한 연구원들의 공이 컸기 때문이다”며 “젊고 유능한 교수들이 많은데 내가 받게 되어 미안하다”고 소감을 대신한다.

또한 강 교수는 연구지원비 전액을 물리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쾌척해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했다. 이번 학술대상 수상을 통해 최근 이공계 기피 현상을 겪는 어려움 속에서 교수는 명예를 얻었고, 물리학과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전하게 되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말한다. 학생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교수직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 알아 볼 수 있었다. 그는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 해 두고 임한다고 한다. 이 모습에서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강 교수는 제자들이 외국 유명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을 때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동국인들에게 있다는 걸 알고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너도 할 수 있다”라는 칭찬과 격려로 우리학생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싶다는 그. “동국인의 잠재력이라면 다른 대학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어느 분야든지 도전 해 보라”는 마지막 당부도 잊지 않는다.

밤새워 연구하는 그의 뜨거운 열정이 동국인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소중한 불빛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 교수의 연구소 불빛이 세계로 뻗어 가는 동국인의 앞날을 밝게 비추는 등빛들이 되길 기대한다. <수> sonhee1347@dongguk.edu

동국 100년, 맑은소리 좋은생각

바야흐로 동국의 백년이 밝았다. 백년이라는 찬란한 빛을 머금은 동약은 전통과 혁신의 격정 한 가운데 서 있다. 일류 동국의 위상을 지키고, 더 나아가 세계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깨달음의 정진(精進)’으로부터 끊임없이 고민하고, 창조하는 도전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동국 백년의 아침이 눈부시도록 아름답다. Do Dream! Be the Newest!



현 다영 사파대 행정3

동국 100년, 맑은 소리 좋은 생각 원고모집

대상 학생, 교수, 직원, 동문, 학부모 등 모든 동국 가족 내용 건학 100주년을 자축하며, 동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국발전을 위한 제언 등 맑은 소리 좋은 생각의 기회 취지에 어울리는 내용 형식 자유 분량 100글자 안팎 원고 마감 2006년 5월 31일까지 원고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전자우편) dgupress@dongguk.edu (교내네트워크) 핸드오피스 전자우편 수신 : 동대신문사 부국장 관주영 원고료와 부상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잘 된 원고를 골라 총 상금 100만원을 드립니다.(감동상 50만원, 자랑상 30만원, 도전상 20만원)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신문사(02-2260-3491)로 하시기 바랍니다.

# 총장선출 앞두고 입장차 가시화

## 재단·교수회·직원노조 본격적인 행보

오는 11월 이뤄질 제16대 총장 선출을 앞두고 학내 각 구성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인 이사회는 총장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규정(안)을 지난 25일 예정돼 있던 이사회의 안건으로 냈다. 총추위 규정(안)은 오는 30일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총추위 규정(안)의 목적은 총추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총추위는 총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 총장직격자를 널리 구하기 위해, 총장후보자를 법인에 추천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총추위는 '가장 적격자라고 판단되는 총장후보자 3인을 선정해 관련된 모든 자료와 함께 무순위로 법인 이사회에 3인을 추천'한다. 또한 총추위는 △교원 대표위원 19명(서울11, 경주8), △각 단과대별 학장 주관 하에 1인 선정 △직원 대표위원 7명(서울4, 경주3) △총무처장, 직원노조 협

의 선정 △대한불교조계종 대표위원 4명=대한불교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회 선정 △동문 대표위원 4명=총동창회 선정 △사회인사 대표위원 2명=법인 이사회 선정 △학부학생 대표위원 3명(서울2, 경주1), 대학원생 대표위원 1명(서울1)=해당 학생회 선정으로 구성된다.

총장후보대상자의 자격으로는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교수로서 교직원, 불교계,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자', '총추위 자격과 능력을 가진 교외인사로 교직원, 불교계, 동문을 포함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자', '총추위 위원 7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해당해야 한다.

이에 교수회(회장=이종욱·정보관리학과)와 직원 노동조합(위원장=최기석)은 지난 26일 총추위에 반대하고 직선제를 관철시키기 위

한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16대 총장후보선출에 있어 교수, 직원에 의한 '직선제' 실시 △법인에 의한 총추위 구성 및 참여 거부 △총장후보선출을 위한 정규직원의 참여율 30% △차차기 이후 총장후보 선출시 직원참여율 확대이다. 이 자리에서 교수회와 노동조합은 함께 '법인의 반민주적 총추위'를 반대하기로 하고, 학내 구성원인 교수와 직원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오후 서울 캠퍼스와 경주캠퍼스의 교수회는 '총추위 저지를 위한 합동 비상 교수총회'를 개최해 법인의 총추위를 반대하고 교수와 직원이 협력해 구성원들에 의한 직선제를 구현할 것을 밝혔다. 이날 서울캠퍼스 비상총회에는 118명이 참석하고 81명이 위임장을 내 직선제 선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전 본관 중앙당에서

노동조합 임시비상총회가 열렸다. 이날 조합원 1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대 총장후보 선출시 직원이 참여하는 직선제'의 안건은 89.2%의 찬성 득표를 얻어 가결됐다. 경주캠퍼스 직원 노동조합에서는 79.4%가 찬성해, 오늘 양 캠퍼스의 교수회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약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직원노조 김홍모 사무국장은 "구성원들은 직선제의 세부사항을 별도 논의를 통해 진행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열리는 제219차 이사회에서 총추위 규정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이날 교수회와 노동조합은 구성원들의 민의를 전달하기 위한 반대시위를 예정 중에 있어 큰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k.edu

## “성폭력 상담 이제는 여학생실에서 하세요”

지난 19일까지 치러진 제19대 총여학생회(이하 총여) 선거 결과, 투표율이 50%에 못미쳐 무산됐다. 이번 총여 선거 무산으로 3년째 집행부가 구성되지 못한 사실상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겨울 일어난 여학생화장실 플래시카메라 사건과, 작년까지도 수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K교수 사건 등은 우리학교의 여학생 처우관리가 얼마나 열악한 지 말해준다.

이 점에서 있어서는 학생들의 성 윤리의식도 문제이다. 여학생들의 김현정 직원은 지난 15일 중앙도서관 주차로 열린 남녀평등과 성희롱에 대해 다른 영화 '노스컨츄리' 감상 토론의 참관경험에 빗대 "남·여학생들의 성 윤리의식의 부족은 심각한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에서는 성폭력 등 여러 여학생 처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특히 여학생실은 총여학생회의 부재로 인한 여학생 처우문제 개선에 있어 여학생을 위한 행사와 업무를 주로 담당해왔다. 뿐만 아니라 연중 △성폭력 상담 △성희롱 예방교육 △신고접수, 사건조사·처리를 진행하고, 매학기 1회 성 윤리 위원회와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심이 저조한 편이라 많은

업무들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1월, 기존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성 윤리위원회'로 변경되고, 위원장이 학생처장에서 여학생실장으로 바뀌었다. 성 윤리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과 사건의 원활한 대책수립을 위해 개최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성 윤리위원회는 어떤 사건이 접수된 경우 사건의 조사결과 확인,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당사자 간의 합의 중재, 피해자의 법률적 구제수단에 관한 지원 결정, 기타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한다.

이와 관련해 손재현 여학생실장은 "성 윤리문제에 있어 대학은 교육기관이므로 일반 사회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학생, 교직원, 교수 등 전 구성원이 평등하고 상호 존중적인 대화 내 성문화를 이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여학생실에서 학내 여권신장을 위해 진행하는 여러 업무들이 학생들의 많은 인식으로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여학생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준비하고, 학교에서는 여학생을 비롯한 전 구성원의 평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k.edu

## 회전무대

### 타임캡슐

○...우리학교 300여 명의 수시 입학생들은 원치않는 복습을 하고 있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지난 해 두차례 신입생 심본의 일 가량이 사전 교육으로 '국어작문'을 들었지만 교양과목 개편으로 인해 현재 사실상 거의 같은 과목인 '작문과 발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학교 측은 강의 개편에 앞서 이전과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았을는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사전교육은 선택, 재수강은 필수(!)"

### 주인없는 F

○...내가 없는 곳에서 내 이름이 애매하게 불러진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몇몇 학생이 수강정지 및 취소기간에 시간표를 변경하고 재확인 하지 않아 지금까지 수강 증으로 인정됐지만 출석도, 시험도 응하지 않아 'F' 위험에 처해 있다는.

학생들은 항상 학교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자신의 학사정보에 신경써야 하지 않을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당신의 공간은 안전하십니까(!)"

### 당면지사

○...축제기간 학교는 학생들의 들뜬 마음에 등등 떠난다는데.

알아본 즉, 학생들이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에 들떠 수업에 결석하거나, 휴강을 요구하며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일이 많았다고.

학생들이 학교 행사에 적극 참여하려는 것은 좋지한 자기와의 약속인 수업과 학교 축제에서 우선순위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축제를 위한 학생들의 배려는 자제휴강(!)"

### 신고합니다

○...우리학교는 아직 2000년도라는데.

알아본 즉, 에어컨 실외기를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지상에서 2M 위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법이 2001년 제정됐지만 예산 문제로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학생들도 실외기 바람에 불쾌해지는 만큼 시정해야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돈 앞에만 서면 양심은 왜 작아지는가(!)"

## 동약문 생략된 절차

"건의사항을 올리려면 어느 메뉴에 들어가야 하는 거지?" "나의주장 게시판도 실명제로 바뀌었네."

지난 7일 건학 100주년을 맞이해 학교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된 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학생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홈페이지는 그동안 경주캠퍼스와 분리해 운영해오던 것을 통합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 서비스를 확대하고, 익명제로 운영해오던 나의주장 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영하게 됐다.

개편은 타 대학 홈페이지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으로 개편체제로 운영된 지 3주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개편 초기에는 홈페이지 체계가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고, 지금도 여전히 메뉴를 찾기 어렵고, 이용하기 불편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나의 주장란에 게시되고 있다.

홈페이지 이용의 실용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좋은 의도로 개편됐지만 개편에 대한 공지가 사전에 전달되지 못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정보관리실 측은 "개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용자들에게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시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마무리한 후 건의사항을 수렴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과 함께 수반되어야 할 과정은 바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다. 이번 개편 역시 이용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사전에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면 좀 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지혜 기자  
iamj713@donggk.edu

## 참사람봉사단 여름학기 단원 모집

참사람봉사단(단장=조의연·영어영문학)이 오늘(29일) 오전 10시부터 내일까지 여름학기 사회봉사단원을 모집한다.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 재학생서비스에서 선착순으로 97명을 선발한다. 사회봉사단원은 다음달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중구형 또는 교내에서 활동내용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33시간 이상 봉사활동하게 된다.

활동평가 결과 패스로 인정된 학생들은 졸업이수학점으로 1학점 인정되며 성적우수 장학선발시 시간인정 등 다양한 특전을 얻을 수 있다. 예비교육은 다음달 20일 중구형에 위탁해 이뤄진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k.edu

## 만해관 보관함 사용신청 30일 오전 선착순 접수

만해관 보관함 사용신청을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만해관 1층 중앙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신청시간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9~10시=1층 전자식 300개 △10~11시=1층 다이얼식 200개 △11~12시=2층 30개, 3층 90개, 별관 90개로 다이얼식 총 210개이다.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은 모두 신청 가능하고 선택은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사용료는 1만 5천원이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세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진정한 나를 찾아서" ... 노동부 지원 사업의 일환인 '제2기 커리어 우먼 아카데미'가 취업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26일부터 3일간 진행됐다. 27일 오후에는 유경순 에버베이버 대표가 '성공한 커리어 우먼을 통한 나의 성공모델 찾기'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 (출처) banacream@donggk.edu

2006-2학기 전과(전공변경) 시행		2006학년도 2학기 전과 전입가능인원 및 전형 안내																			
2006학년도 2학기 전과(전공변경)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06.5.22)																			
대학	학과(전공)	전입가능인원		전형기준		전형일시		전형장소		대학	학과(전공)	전입가능인원		전형기준		전형일시		전형장소			
		2학년	3학년	서류심사	구술시험	실기시험	교과영역					2학년	3학년	서류심사	구술시험	실기시험	교과영역				
불교대학	불교학전공	17	17	100%				6.22(목)	14:00	만해관 B463호		공과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15		80%	20%	6.21(수) 10:00		해화관 G503호	
	인도철학전공	9	9	100%				6.22(목)	14:00	교수회관 322호			식품자원경제학전공	15		80%	20%	6.21(수) 10:00		해화관 G503호	
	선학전공	9	9	100%				6.22(목)	13:00	만해관 B369호			식품공학과	30		50%	50%	6.23(금) 11:00		원흥관 E304호 식품공학과 사무실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5	13	100%				6.23(금)	14:00	교수회관 131호		식품공학과	27		50%	50%	6.23(금) 11:00		원흥관 E304호		
	독어독문학과	15	15	100%				6.22(목)	10:00	교수회관 306호		전자공학과	53	42	50%	50%	6.23(금) 14:00		원흥관 E601호 전자공학세미나실		
	영어일문학과	15	13	50%	50%			6.22(목)	14:00	만해관 456호		전기공학과	43	46	100%		6.22(목) 15:00		원흥관 F201호		
	중어중문학과	20	20	50%	50%			6.22(목)	13:30	교수회관 429호		토목환경공학과	30	29	50%	50%	6.22(목) 10:00		원흥관 E505호		
	사학과	15	13	100%				6.22(목)	15:00	교수회관 328호		건축공학과	15	9	100%		6.22(목) 18:00		원흥관 E627호 설계세미나실		
	철학과	15	15	50%	50%			6.22(목)	11:00	교수회관 105호		건축학과	15	12	100%		6.22(목) 18:00		원흥관 E627호 설계세미나실		
	윤리문화학과	15	14	80%	20%			6.22(목)	14:00	만해관 470호		생명화학공학과	35	34	100%		6.23(금) 15:00		원흥관 E221호 생명화학공세미나실		
	영어영문학과	25	22	100%				6.22(목)	15:00	교수회관 221호		기계공학과	30	30	100%		6.22(목) 11:00		원흥관 E132호 기계공학세미나실		
	영어통번역학과	20	19	100%				6.22(목)	15:00	교수회관 221호		컴퓨터공학전공	35	26		100%	6.22(목) 15:00		정보문화관 Q307호		
	수학과	20	20	100%				6.22(목)	13:00	과학관 D107호		멀티미디어공학전공	25	20	30%	70%	6.22(목) 16:00		원흥관 E405호		
이과대학	화학과	20	20	90%	10%			6.22(목)	10:00	과학관 D210호 문헌실		정보통신공학과	50	55	90%	10%	6.22(목) 14:00		정보문화관 P201호		
	통계학과	20	20	100%				6.22(목)	14:00	과학관 D115호		산림공학전공	45	43	100%		6.22(목) 14:00		정보문화관 P206호		
	생물학과	15	12	90%	10%			6.22(목)	10:00	해화관 G306호		교육학과	6	50%	40%	10%	6.22(목) 14:00		학림관 J212호		
법과대학	물리학과	20	20	90%	10%			6.22(목)	10:00	과학관 D305호		국어교육과	6		50%	25%	25%	6.23(금) 13:00		학림관 J118호	
	반도체과학과	20	20	50%	50%			6.22(목)	14:00	명진관 A301호		역사교육과	6		75%	15%	10%	6.22(목) 15:00		학림관 J220호	
	법학과	65	50					6.22(금)	14:00	만해관 B175호 강사대기실		지리교육과	6	2	90%	5%	5%	6.22(목) 10:00		학림관 J202호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전공	20	16	90%	10%			6.22(목)	15:30	동국관 M505호		수학교육과	6		90%	5%	5%	6.22(목) 11:00		학림관 J205호	
	경제학전공	45	30	90%	10%			6.22(목)	14:00	만해관 B466호		가정교육과	6		80%	10%	10%	6.22(목) 10:00		학림관 J219호	
	행정학전공	20		100%				6.23(금)	14:00	동국관 사회과학대학 교강사실		체육교육과	14	14	80%	5%	30%	6.22(목) 14:00		체육관	
	사회학전공	20	19	100%				6.22(목)	14:00	교수회관 423호		불교미술전공	8	6	70%	30%	6.23(금) 10:00		문화관 지하1층 종합실기실		
	북한학전공	20	19	100%				6.22(목)	14:00	동국관 M505호		한국화전공	8	7	70%	30%	6.23(금) 10:00		문화관 지하1층 종합실기실		
	신문방송학전공	25	8	100%				6.22(목)	14:00	동국관 신문방송학실습실		서양화전공	8	6	70%	30%	6.23(금) 10:00		문화관 지하1층 종합실기실		
	경찰행정학과	30	25					미정(추후공지)				조소전공	8	7	70%	30%	6.23(금) 10:00		문화관 지하1층 종합실기실		
	국제통상학전공	48	27	100%				6.23(금)	10:00	동국관 L503호 해외개발연구소		연극전공	23	23	70%	30%	6.23(금) 17:00		문화관 소극장		
	경영학전공	70	67	70%	30%			6.23(금)	10:00	동국관 L413호 경영관리연구소		영화영상전공	18	17	50%	10%	40%	6.23(금) 11:00		문화관 2층 애니메이션실습실	
	공공학전공		12	100%				6.22(목)	14:00	동국관 M526호		문예창작학과	15	8	70%	30%	6.22(목) 14:00		문화관 1층 문예창작과 사무실		
경영대학	광공보학전공	25		100%				6.22(목)	14:00	동국관 M526호											
	회계학과	60	44	70%	30%			6.23(금)	14:00	동국관 L311호											
	정보관리학전공	40	38	100%				6.22(목)	10:00	동국관 L514호 IT혁신센터											
생명지연과학대학	식품생명공학과	15		100%				6.22(목)	10:00	해화관 G431호											
	식품자원학전공		14	100%				6.22(목)	10:00	해화관 G431호											
생명지연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15		100%				6.22(목)	10:00	해화관 G201호											
	산림자원학전공	15		100%				6.22(목)	10:00	해화관 G201호											

\* 2학년 : 2006-1학기(2006.6.1 기준) 현재 2.3학기 재학생  
 \* 3학년 : 2006-1학기(2006.6.1 기준) 현재 4.5학기 재학생  
 \* 2006-1학기 현재 6학기 재학생은 3학년 전입가능인원 내에서 4.5학기 학생 후순위로 전과를 허가 (2007학년도 전과부터 6학기 재학생은 전과대상에서 제외)  
 \* 학칙변동일 : 2006. 9. 1 ('2006-2학기' 개시일)  
 \* 전형 불합자(미응시자)는 서류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불합격처리 됨  
 \*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와 경영학과 전과 기준과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안내

5·31 지방선거와 시민민주주의

우리 손으로 삶의 질을 정하는 날

5월 31일은 새롭게 지역 살림을 맡아 나갈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하는 날이다.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이 정치시켰던 지방자치제가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주요한 민주화 조치로 부활되어 1995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한 이래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둘러싼 현 상황은 새로운 지역일꾼에 대한 관심과 기대보다는 실망과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지난 10여 년간 뇌물수수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은 161명에 달하며, 서울시의회의원의 경우 재정경제위원회나, 도시관리위원회, 건설위원회, 예결산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상임위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 이미 10여 년간 답습해온 지방행정을 둘러싼 고질적인 부패와, 주민자치라 하기에 어색하기 짝이 없는 행정일변도 관주도의 지방자치는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치' 없는 지방자치 10년

여기에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과 진배없는 일부 지역의 싹쓸이현상은 공천현금과 같은 비리와 잡음으로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이번 선거는 '투표함의 뚜껑을 열어보나마라'라는 식의 분위기가 더해져 지방선거가 민주



논단

조경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부장

주의의 축제로, 지역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론의 장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냉소와 무관심 속에 주요 정당들 간의 이진투구의 장으로 변질된 듯하여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더구나 얼마 전 발생한 야당 대표에 대한 상해 사건을 두고, 선거에서의 이해득실을 따져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려는 분위기가 더해지며, 한 주요 후보는 유세 도중 '대표님 고맙습니다!'고 구호를 외치는 웃지 못할 희극마저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지방선거를 둘러싸고 가장 열띤 논쟁이 벌어져야 할 지역의 의제들은 모두 사라지고, 야당 대변인의 '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칼부림을 했다'는 근거 없는 막판과 '야당의 싹쓸이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당 지도부의 읍소가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정치권의 행태에 거듭 절망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은 자기 동네에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어서 투표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라져 버린 지역의제들

그럼에도 지역의 대표를 우리의 총의를 모아 뽑지 못한다면 앞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올바른 자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시민 삶의 질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복지, 문화, 교육 등의 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지역을 만들어 가는가에 달려 있다.

중앙 정치가 시민이 참여하기에는 너무 커다란 의제를 다루며 통로도 제한적인 반면, 지방자치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자기 동네의 삶에 대한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 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이 나서야 할 때

2단계 BK21 2개 선정에 그쳐

정량평가·구조개혁 미흡 ... 중간평가 위한 방안 필요

우리학교는 지난 4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단계 BK(Brain Korea: 두뇌한국)21 사업 선정결과에서 1개의 대형사업단 '우리세계화시대 불교학 교육연구(사업단장=조용길·불교학)'와 1개의 핵심사업단 '차세대 나노반도체 원천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팀(사업장=김현정·반도체과학)'이 선정됐다.

대형사업단과 핵심사업단을 각 5개씩 구성하여 지원하였으나 최종 선정 2개, 대학별 지원규모 48위에 그쳐 아쉬운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불교학과 사업단은 앞으로 7년간 약 40억을, 반도체학과 사업단은 약 17억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BK21사업 선정 분석결과, 먼저 사

업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나쁘지 않았지만 논문 수, 연구비 수주실적 등이 반영되는 정량평가 항목에서 50%(150점 만점)미만의 점수를 취득하였다. 평균적으로 대형 사업단의 취득 점수는 약 55점이고 핵심사업팀의 경우는 59.5점으로, 이는 만점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선정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학과간 연합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단일 학과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핵심분야 역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처의 한 관계자는 "단일 학과의 참여가 부진했던 이유는 사업팀 구성에 필요한 최소 참여교수·업적기준 충족이 어려

웠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1개의 대형사업단과 4개의 핵심사업팀이 지원한 과학기술분야에서 참여 및 성적이 부진했던 점이나 7점의 가장 항목이었던 대학교조개혁 실적이 미흡한 것 역시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선정된 사업들의 경우 교수의 연구업적이나 대학원 학생수가 충분했고 수행 계획이 체계적으로 꾸려져 있었다. 특히 '차세대 나노반도체 원천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외국 대학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우리학교 학제와의 연관성을 잘 분석하였다.

이제는 선정결과를 뒤로하고 오는 2008년에 실시될 BK21사업 중간평가를

따라서 시민이 얼마나 의식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하는가의 수준에 따라 자기 지역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결정 짓게 되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도로 하나를 뚫는 것보다 숲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동네를 바라고, 으르렁 리한 시청청사를 짓기보다는 급식비가 없어 점심을 굶는 아이에게 도시락을 건네기를 원하는 우리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건설업자와 땅부자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개발사업에만 열을 올리는 오늘의 지방선거의 행태는, 사실 주인인 우리가 돌보지 않은 결과에 다를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인답게 서는 길밖에 없다.

선거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는 선거연령이 만 19세까지로 확대되었다.

이전까지 모든 면에서 성인의 의무를 감당하면서도 당연한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아오던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사회의 책임 있는 유권자로서 반드시 투표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위에 군림하는 구시대적 공직자가 아니라 지역과 주민을 위해 성심성의껏 일할 수 있는 참일꾼을 뽑도록 하자.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 탄탄한 사업안을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중요한 만큼 비용과 공간, 기자재 등의 지원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적으로 대형사업을 위해 여러 과를 연계시킬 경우 사업지원금액 자체는 늘어날지 몰라도 교수 1인당 배정되는 연구비와 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율도 필요하다. 아울러 BK21이 대학원 육성 정책인 만큼 충분한 대학원생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연구처는 취약한 점을 보완하여 2008년에 실시될 BK21사업 중간평가 추가 진입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 정책사업을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인다.

비록 이번 2단계 BK21의 향방은 가려졌지만 학내 구성원들 간의 의견을 절충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애써야 할 시점이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사설

동국의 미래, 파워 엘리트 장학 프로그램

학생처에서 주관하는 동국 100주년 파워 엘리트 장학 제도의 구제안이 최종 확정 공고됐다. 입안 당시부터 주목을 받던 이 제도의 최초 수혜자는 지원 대상학교의 내년 9월 입학 예정자부터 그 대상이 된다. 아직도 1년이 남았지만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니다.

장학제도의 시행이 가져다 주는 파급 효과는 클 것이다. 특히, 더 많은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고무적이다. 아이비리그 대학의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면 1억 5천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기본적으로 받게 된다. 세계적인 학자로 성장한 다음에는 모교 교수로 와서 학교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이런 인원이 향후 10년간 총 100명이다. 졸업이 반만 성공한다 해도 10년 후엔 50명의 수혜자가 나오게 되며, 그 중엔 이미 모교 교수로 초빙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이 제도가 20년, 30년 지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학교의 교수진은 세계 최고에 근접하는 수준을 자랑하게 된다. 세계 최고의 교수진은 당연히 최고의 제자들을 기르게 되며 초일류의 학문적 성과를 기대하게 한다. 향후 30년간, 그러니까 약 한 세대 정도가 중요한 시간 단위다. 30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학생의 절반만 교수로 채용한다 해도 계산대로라면 30년 뒤 서울캠퍼스 교수진의 40% 정도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교수들로 포진된다. 물론 MBA와 로스쿨은 별도로 자가 발전시킨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학원 자체 교육이 가능해진다.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도 세계 수준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쩌면 이것은 꿈이다. 혹은 책상 위에 앉아서 비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만의 무지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제도를 꿈과 무지개로만 바라보려는 태도가 오히려 구태의연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첫 번째가 중요하다. 수혜자가 2~3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되어야만 한다. 홍보가 중요하다.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학과 교수들을 통해 학생들을 독려하도록 애써야 한다. 학생들 역시 초일류 학자의 꿈을 가지고 도전정신을 길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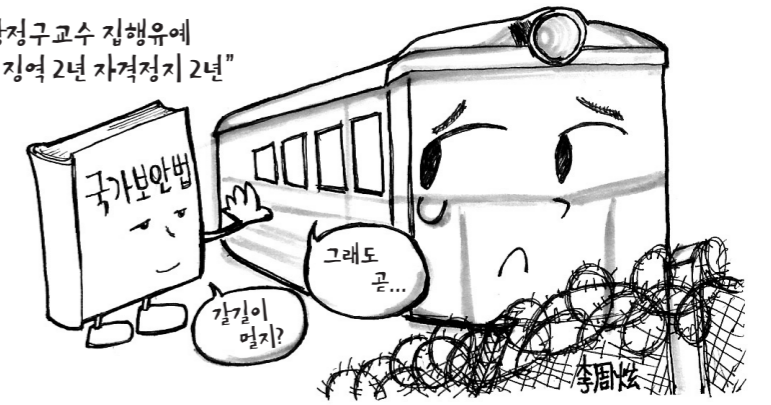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법 아닌가. 동국 미래의 발전, 정발로 이 파워 엘리트의 꿈속에 있다.

동국만평

이주현 nitake@dongguk.edu

"남북열차 시범운행 무산"

"강정구교수 집행유예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김주환, 편집장: 김주환, 발행처: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성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100th Anniversary DONGGUK UNIVERSITY
생명과 지구를 생각하는 동국의 큰 학문, 세상이 모두 손을 내밉니다
정부와 기업, 세계 명문대학들이 동국대학교와 손을 잡습니다. 10개 대학의 학문단위를 세계최고의 경쟁력있는 분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동국을 향해, 정부는 특성화 집중지원과 연구비 지원, 기업은 산학협력 제의, 세계유수대학들은 학술교류 요청을 하는 등 세상이 활짝 문을 열고 다가서고 있습니다.
www.dongguk.edu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2006학년도 후기

동국 100주년 파워 엘리트 장학 안내
1. 장학내용
0 장학금: \$50,000/년 이내 지급함 (최대 3년간). 단, RA(Research Assistant)/TA(Teaching Assistant), 기타 장학금 수혜시 체제비만 지급함.
0 지원대상 학교
미국의 분야별 대학원 평가 순위(전공학과 순위) 상위 5위 이내의 대학 석(박)사 과정. (Engineering, Education, Social Science & Humanities, Fine Arts, The Science, Public Affairs, Medicine 등 7개 분야) U.S. News & World Report 순위 기준. 로스쿨, MBA는 제외한다.
0 지원인원: 10명(년)
- 향후 10년간 총 100명 지원 예정이다.
2. 지원자격
0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교 학부 졸업생(03. 2월 이후 졸업생) 또는 졸업예정자(07. 2월). 지원 대상학교의 2007년 9월 입학 대상자.
- 학부 성적 3.5 이상.
- CBT(Computer Based TOEFL) 및 GRE 성적 제출.
- 자기소개서 및 학업지도 추천서 제출.
3. 신청기간: 2006년 11월에 동대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 예정
4. 선발기준: 성적 + 면접
\* 상세한 기준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5. 재원사항
0 박사학위 취득 후 본교 교직원 채용시 우대함.
0 매년/학기별 학업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양식 및 제출서류는 추후 공지).
0 총 유학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음.
0 박사학위 미 취득시 중도 포기자로 간주하여 기 지급된 장학금 환수함.
0 석사 진학 예정자는 박사학위를 취득함을 전제로 지원함.
0 유학 중 학교변경 및 유학관련 기타사항은 사안별로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0 선발이 확정된 자는 반드시 당해연도 입학시기에 등록을 필하여야 함.

졸업요건 영어PASS제 토익시험(6월) 시행
영어PASS제는 졸업요건으로, 해당 대학/학과는 지정된 소정의 점수를 졸업 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정규시험(TOEIC, TOEFL, TEPS)이외의 패스 취득 기회 확대를 위해 PASS제 모의 토익을 시행합니다.
1. 접수: 6. 5(월) ~ 6. 7(수) 24:00까지
2. 접수증 출력기간: 6. 14(수) ~ 6. 17(토)
3. 방법: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재학생서비스 - 외국어PASS제 - 영어패스시험 신청 - 응시료 입금 - 접수증 출력
4. 시험: 2006. 6. 17(토) 10:00 ~ 12:30
해와관 2층, 동국관(M) 3층
5. 대상: 졸업대상자 중 영어PASS제 미취득자
6. 응시료: 5,000원
7. 입금마감일: 2006. 6. 8(목) 24:00까지 (미입금시 취소)
입금계좌: 조흥 371-01-012083(국제교육원)
8. 접수 주의사항(아래 사항을 지키지 않을시 취소 가능)
가. 학적부에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모든 학사서비스가 제한됩니다.
합정부에 반드시 사진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마감일까지 반드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시 본인이름, 학번 또는 학과 표기
예: 홍길동2025123)
다. 기 패스자 및 미입금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시험준비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연필(사포)
10. 문의: 국제교육원 (해와관 1층, 2260-3471, 3590)
11. 시험 주의사항:
가. 9시 45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0:00 이후는 절대 입실 불가.
나.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다.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 “투표는 우리의 권리”

## 적극적 참여로 미래사회 이끄는 대학생의 힘 보일때

5·31지방선거가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각 거리는 지방선거 유세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반면에 선거를 비롯한 정치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오는 3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만19세 이상(1987년 5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실질적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학생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학 내 ‘탈정치화’ 바람

이 불어오면서 우리학교와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 총학생회에서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 탈퇴를 결정해, 과거와는 달리 대학생들의 정치활동이 점점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각 정당의 노력도 돋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학생 선거유니폼 대회를 열어 선정된 10개 작품을 당내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들이 디자인 된 옷을 입고 작품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대학에서는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운동본부 구성하고 학생들에게 부재자 투표를 신청 받아 적극적 선거 참여를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 총학생회(회장=정성진·경영4)가 주도로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부재자 투표 신청을 대자보를 붙여 홍보하고 각 단과대에서 신청을 받았다. 2,000명 이상 신청 시 투표소를 따로 설치하려고 했으나 200명만

신청하는 등 학생 참여가 부족해 설치가 무산됐다.

오는 31일 선거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는 대학은 전국 대학 중 9개 대학으로 그 중, 선거법 규정에 나와 있는 기준 인원인 2,000명 이상의 선거인 신청이 있었던 학교는 연세대, 건국대 총주캠퍼스, 조선대 3곳이며, 그 밖의 학교들은 선거법 예외규정에 적용된 학교들이었다.

이번 선거 투표와 관련해 우리학교의 한 학생은 “선거보다는 취업과 토익

등 직접 와 닿는 취업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학의 투표소 설치 기피 요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계기관의 무관심과 함께 중앙선관위의 홍보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젊은층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유권자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부재자 투표대상도 대폭 확대했지만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모두가 원하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기본적 투표권부터 행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생들이 취업을 비롯한 정치·사회적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참여했을 때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강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 달라진 5·31 선거

## 19세 선거권 획득 부재자 투표 확대

만 19세 유권자의 힘이 발휘된다. 오는 31일 실시되는 지방 선거에서는 만 19세의 유권자의 투표권이 확대돼 20대의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987년 5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대학생은 지난해 10월 26일 재·보궐선거부터 투표권이 주어졌지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부터 62만명이 새로운 유권자로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정치권에서는 젊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각 후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자신을 홍보하고,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미지나 문자를 통한 상투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이에 익숙한 젊은 표심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는 부재자 범위를 넓히고, 비례 대표제를 도입했다.

군인·경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던 부재자 신고요건을 바꿔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선거 유권자로 범위를 넓힌다. 그동안 선거일에 근무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던 철도기관사, 항공사승무원, 택시기사 등의 헌업종사자와 일반유권자에게도 선거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우리 신문에서는 오는 3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생활동포털 사이트인 '캠퍼스라이프' 학생기자단이 단독으로 가진 서울시장 후보인 강금실(열린우리당)·오세훈(한나라당) 후보 대담을 정리해 공동 게재한다. 편집자

- 대학 정책과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은,  
= 서울시가 그동안 교육에 등한시했다. 근본적으로 대학을 포함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예산만으론 어렵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예산 5%를 정부가 교육에 투자해야한다는 법안을 내놓았는데 맞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OECD 선진국에서는 56% 정도 교육예산을 지원하는데 비해 현재 서울시는 36%밖에 사용 안하고 있다. 정부가 더 지원하기 어렵다면 시가 나서서 보완해야 한다. 연 2조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당장 어렵기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 현재 서울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 담허물기 사업을 진행중인데 시장이 되면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또 다른 공존방안은?  
= 대안은 동사무소를 복식센터와 문화센터로 만들고 해서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안이 있다. 그중 대학중심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대학협조를 얻어 검증 및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평가를 거친 후 어떤 형태로 만들지 좀 더 고민해야겠다.

- 이번 선거부터 약 62만 명의 젊은 유권자들이 늘어났는데 낮은 정치참여 속에서 표심을 잡기위한

- 뒤늦게 당 경선에 참여, 지지율 1위에 올라섰는데,  
= 잘 아시다시피 국민 참여선거인단의 표가 많아 이겼다. 16대 의정활동 모습에서 한나라당을 바꾸자는 열망이 강했고 이런 잔영이 남아 이번 당내 경선과 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나를 따르라” 식은 과거형 리더십이다. 요즘은 뒤에서 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마차형 리더십’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설득과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으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강 후보와 다른 차별화된 교육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 지금 강 후보가 교육 시장론을 들고 나오면서 초점이 교육에 맞춰지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장이 교육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감이 따로 있다.

강 후보가 2조원을 만들어서 교육에 쓰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시장이 2-3조원을 아꼈으니, 본인도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절감되는 예산을 모두 교육에 쏟아 붓겠다는 의견인 것 같지만 현재 시스템상 그

## 교육문제 해결 ...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때문에 우선 연 5천억 원으로 잡았다.

또한, 그 지역과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문화를 형성해야한다. 각 대학마다 독특한 문화를 지원해서 문화적 정서적인 환경이 돼야 대학생 활동도 즐겁고 더 많이 고민하고 사회에 나가서 능률있게 일할 수 있다.

- 서울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 가장 절박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즉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인데, 먹고 살기 힘들게 하는 이유가 또 있다.

태어나서 자라고 직장 다니고 노인이 될 때까지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안심하고 직장을 다닐 수 없다. 보육 문제만큼은 해결돼 이 사회에서 애 낳는 고통과 두려움이 없어져야 한다. 해결책으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데 여성 혼자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

공교육에 예산지원을 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면 교육 보육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러면 아이도 즐겁고 부모도 즐거워진다.

전략은?  
= 20대가 이 나라의 주인이자, 미래를 형성하는 주인이다.

변화를 바라고 가장 앞서서 주도하는 세대로 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이 많이 되어야 한다.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자체 선거는 총선, 대선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살림 정치다. 선거를 통해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여성최초라는 부담감은 없는지,  
= 부담이 있다. 현재 대학 안에 여대생은 30-40%가 넘는다. 난 1% 시절이었고 또 전문직 법관으로 일하면서 과도기를 겪었다. 여성으로 드문 전문직 법관이다 보니 내게 역할이 온다. 서울 시장에 출마한 것도 이런 이유도 있다. 여성정치인의 출현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기에 항상 부담을 갖고 있다.

기사제공 = 캠퍼스 라이프

## 대학자율권 최대 보장해 줘야

-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당선된다면 해결방안은.  
= 서울시는 하나의 지자체일 뿐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은 한계가 생긴다. 나라전체의 경제가 좋아야 기업의 이익이 커진다. 이익이 많아 재투자자를 하고 그리고 취업이 된다. 그런 식으로 선순환이 돼야지 억지로 만들어서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 의미가 없다고 본다.

- 올해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가 되면서 젊은 유권자들이 늘어났는데 표심을 잡기위한 공력이 있는지.  
= 새내기들의 표를 얻기 위해 특별한 공약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등록금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식이면 당장 표가 늘겠지만 사실상 서울시장은 등록금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공감한다면 내게 표를 줄 것이다. 특정계층을 위한 무리한 공약은 없다.

-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가 교육정책을 중점적

하게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교육에 대한 영향력도 한계가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예산도 한계가 있다. 거기에 다 아이디어는 비슷하고 크게 차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얼마 전부터 학생부 반영비율과 학교측 우수인재선발권을 대학자율에 맡기는 문제가 논란거리였다. 대학자율화와 교육부 심볼제도에 대해 견해는,  
= 교육정책, 특히 입시에 중앙정부가 이렇게 관여하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대학 정도 되면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학교는 이리이러한 특성, 적성을 가진 학생을 우선적으로 뽑고 싶어 하면 뽑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 철학에 따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평등마인드가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에 의해 모든 교육정책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단, 아직까지 기여 입학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기사제공 = 캠퍼스 라이프

또한 올해부터 구·시의원 선거에 비해 대표제를 도입하여 유권자는 △시·도지사선거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구·시·군장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 총 6개의 선거유지에 투표해야 한다.

이번 변화를 통해 대학생들의 정치참여 기회가 늘어났지만, 정작 대학생들은 선거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자신에게 선거권이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 앞으로 대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노력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선거에 참여해 행사 할 수 있는 한 표의 권리.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는 현재의 풍토에서 벗어나 대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건강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

이번 5.31 지방 선거를 통해 젊은 정치, 깨끗한 정치를 꿈만 꾸기보다 투표 권리를 행사해 꿈을 실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기획부  
dgupress@dongguk.edu

# 5월, 동약은 즐겁다

5월 한 달 동안 100주년을 맞아 동약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 중구민 등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긴 100주년 기념행사 속 동국인들의 모습을 담아냈다. 편집자



### 열린음악회

지난 9일 대운동장에서 열린 음악회는 학내 구성원외에 중구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뜻깊은 공연이었다. 이 날 행사에는 우리학교 출신 연예인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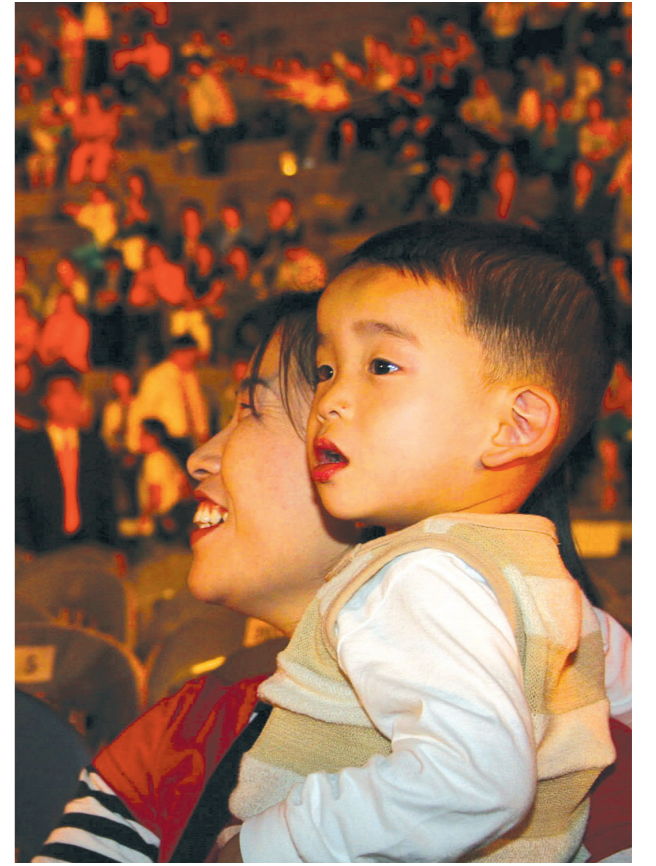
### 2006 목격대동제

플리먼 오라! '2006목격 대동제'로 23일부터 3일간 진행된 축제 기간 동안 동약 곳곳은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곳곳에서 펼쳐진 게임과 공연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가는 줄 모르게 했다.



### 달빛연등축제

지난 12일 팔정도에서 열린 달빛연등축제에는 실사댄스, 시낭송, 발레, 한국무용 등 공연과 퀴즈가 펼쳐져 팔정도의 밤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 동국인 한마당 대축제

따로 또 하나로 모여라! 100년을 돌아보는 만남과 화합의 대향연이 지난 13일 동약 곳곳에서 펼쳐졌다. 1부행사에서는 그룹별로 만남의 자리를 갖고, 2부행사에서는 모두가 만해광장으로 모여 동국인 대화합의 축하공연을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 2006 Seoul Rock Festival in DGU 100th

동약을 흔드는 물 좋은 Rock 콘서트, 친환경 프로젝트, 전국 규모의 콘서트 성격을 가진 100주년 기념 최고의 학생축제에 참가자들이 열광하고 있다. 이번 락 페스티벌이 열린 대운동장에는 모인 사람들과 가수들의 열기가 오래도록 식을 줄 몰랐다.



##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안내

###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여대생의 진로관리능력 향상과 취업을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커리어우먼 아카데미>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여대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제3기 일정 및 장소  
6. 2(금) ~ 6. 4(일) : 금, 토, 일 3일간 (원흥관 E103)
- 접수안내  
방문접수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실 박선희 교내 3935)
- 모집인원 : 50명 (예비인원 포함 100명까지 신청가능)
- 모집대상 : 본교 여대생 누구나(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대학원생)
- 특 전 : 점심식사 및 음료/다과 제공/수료증 발급(학생처장 명)
- 선배명단 : 박혜영(통계학과) 외환은행 입사(05.8 졸업) 이지명(정보관리) 한국수출보험공사(04.2 졸업) 강세원(정보관리) 삼성전자 입사(05.2 졸업) 여혜란(법학) 롯데마트 입사(05.2 졸업)
- 컨설턴트 : 조은주/정혜영/김현수/문지영/송남수 (현 RIGHT Management Korea 컨설턴트 KAIST-MBA /충북대/동국대/숭실대 등 대학강의 및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및 모토로라,외환은행,조흥은행,코카콜라,한국전력,오라클,삼성생명,교보생명,센마이코스시스템 등 다수 기업 수행 프로젝트)

### 제3기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프로그램 내용

구분	시간	교육명	내용	강사
6. 2(금) - 1일차 자기진단	17:00~19:00	사전 교육 및 자기진단	직업선호도검사 /MBTI 직업가치관	박 선 회 전 진 상
	10:00~12:00	팀별 활동	팀장 선정/조별 활동/team work 다지기	박 선 회 김 승 식
	12:00~13:00	점심시간 및 Break time		
6. 3(토) - 2일차 입사서류 작성법	13:00~14:50	여성 CEO 초청 특강	성공한 커리어우먼을 통한 나의 성공 모델링 찾기	정 영 회 (주)소프트맥스 대표 이사 (경영학과 졸업)
	15:00~16:50	면접이미지메이킹	면접 이미지 메이킹 & 클리닉	유 희 실 장 이미지파티너즈
	17:00~19:00	입사서류 클리닉	담당 컨설턴트의 그라운드클리닉	조 은 주 송 남 수 김 현 수 문 지 영
6. 4(일) - 3일차 면접 시뮬레이션	10:00~12:00	여성채용담당자와 취업전략	여성선호업종 파악과 여성채용 전망	유 재 홍 유레가 대표이사
	12:00~13:00	점심시간 및 Break time		
	13:00~15:00	면접 Role Play	- Brain Storming - 1: 다 면접 시뮬레이션 - 토론면접 시뮬레이션 - 면접 자기진단	조 은 주 송 남 수 김 현 수 정 혜 영
	15:00~17:00	면접 Role Play 및 모의면접		
	17:10~18:30	선배와의 대화 (통계/법학/정보관리)	최근 입사에 성공한 선배를 성공담 듣기	삼성전자/롯데마트/외환은행/수출보험공사
	18:30~19:00	행사 평가	설문조사 및 수료식	진로교육상담팀
19:00~20:00	멘토링 TIME	선배·후배 식사 및 간담회	진로교육상담팀	

※상기 일정과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Do Dream, Be the Newest 동국인" [ HRDP 취업캠프 ] 신청 안내

학생처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재학생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캠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니 재학생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캠프명 : 재학생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캠프
2. 목적
  -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자신감 및 리더십 함양 교육 강화
  - 입사서류작성, 모의면접 등 체험을 통한 재학생 취업 성공 및 기본 역량 강화
  - 교육 참가자간의 네트워킹 형성 및 상호 협력관계 구축의 장 마련
3. 캠프(교육) 내용
  - 가. 교육형태 : 합숙교육(3박4일)
  - 나. 교육일정 및 선발인원

구분	회 수	일 자	인 원	비 고
하계방학	1 기	2006. 7. 4(화) - 7. 7(금)	50명	
	2 기	2006. 7.11(화) - 7.14(금)	50명	
동계방학	3 기	2007. 1. 9(화) - 1.12(금)	50명	예정
	4 기	2007. 1.16(화) - 1.19(금)	50명	예정
계			200명	

4. 교육장소 : 수도권 소재 연수기관 (추후 안내)
5. 신청대상 : 재학생 전학년(인원초과시 3.4학년 우선배정)
6. 신청기간 : 하계방학 1.2기 대상자 : 2006년 6월중 동계방학 3.4기 대상자 : 2006년 2학기중
7. 신청장소 :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7. 기타사항 :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제공 및 수료증 발급
- ※ 교육장소가 확정 되는대로 신청기간 등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예정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팀으로 문의바람 (문의전화 : 2260-3055,3059)

### 【 2006년 하계 취업특강 】 신청 안내

학생처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 2006년 하계 취업특강 (중소기업아카데미) 】을 개최 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대상 :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  
☞ 재학생 누구나 !! (특히 취업예정자)
2. 신청기간 : 2006년 6월중
3. 신청장소 : 학생처 취업지원센터(본관 2층)
4. 교육기간 : 2006. 6. 21(수) ~ 6.23(금), 3일간
5. 교육장소 : 다함관세미나실
6. 특강내용 : 추후 공지예정
7. 기타사항 :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제공
- ☞ 신청기간 및 특강내용 등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 예정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팀으로 문의바람 (문의전화 : 2260-3055,3059)

# 열린글터

독자 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 여러분의  
직접 찍은 사진이나 만화, 4매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게재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휴대이메일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dae.ac.kr  
TEL : 2263-3461 ~ 2 FAX : 2279-1070

## 만화에 대한 짧은 고찰

만화하면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공부의 암적인 존재', '애들이나 보는 유치한 책', 혹은 '바보들이나 보는 것'이라고 하고 하신다. 만화(漫畵)라는 이 두 글자의 뜻도 '질펀한 그림'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부르는 만화라는 명칭마저도 만화를 저급문화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만화는 코흘리개들이나 보는 못난 존재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화는 문화이자 산업이다. 우리는 만화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화를 보는 주요 연령층은 10~20대이다. 하지만 만화제국 일본에서는 모든 연령층이 즐겨본다. 코흘

리개 꼬맹이들부터 점잖은 노인사까지 언제 어디서나 만화를 본다. 덕분에 일본의 만화는 다양한 연령층에 맞게 다양한 장르의 만화가 나온다. 포켓몬스터와 같이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뿐만 아니라 시마과장과 같은 무겁고 현실적인 내용의 만화책도 인기리에 발매되고 있다. 일본에서 만화는 어엿한 문화이다. 또한 일본에서 만화는 유망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두 배의 인구를 가지는 큰 시장을 발판으로 일본의 잡지 주간 발행부수는 600만부 이상이다. 평균 1년에 20억권의 만화가 발간되며 일본만화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5,500만엔(5조 5천억)에 달한다. 또 몇 년 이내에 1

조언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만화로 인한 부가수익도 무시할 수 없다. 만화를 기반으로 하는 캐릭터 산업의 수익은 5,500만엔의 2~3 배에 이른다. 요즘 한국만화 보기가 참 힘들다. 내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국산만화가 쏟아져 나왔었다. 하지만 요즘은 소위 잘 팔리는 작가 외에 모두 일본만화뿐이다. 우리가 만화를 계속 무시하고 핑계쳐둔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만화산업을 일본에게 독점 당하게 될 것이다. 그건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문화 하나를 일본에게 점령당하는 것과 같다. 우리 모두 만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하나의 문화로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홍범(사과대 신발2)

## 참된 삶을 위한 자기반성

사람이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한 일들이 몇이나 될까? 사람은 어떠한 일을 겪거나 혹은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후회도 하게 된다. 이에 사람은 보람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후회할 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쉽지 않으며 헛되게 되는 일이 많다. 내가 비록 지금까지 20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동안에 내가 겪었던 일들은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내가 후회 없이 보낸 일들은 쉽

게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미안한 부분은 가족이다. '가까우니까, 혹은 매일 보는 사람들 이니까'라는 식의 생각이 나를 좀 더 소홀하게 만들었고 그에 따른 행동도 바르지 못했다. 즐거울 때나 슬프거나 힘들 때에 같이 있어주는 것이 가족의 역할인데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다. 생각 없이 말을 하거나 나만 생각하는 행동을 한 적도 많았다. 이러한 모든 말이나 행동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생

활해왔던 것이 후회된다. 앞으로는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대하는 데에 있어서 더욱 노력하는 자세를 기르고 싶다. 또한 배려와 관용의 미덕도 갖추고 싶다. 나는 예전부터 남의 허물은 잘 보지나 나 자신의 잘못은 잘 알지 못했다. 따라서 나 자신의 정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처음부터 한 번에 변화하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노력한다면 변화되리라 생각한다. 말의 씩씩이와 기본 행동에 서부터 신경을 쓰고 하나하나 바꿔간다면 남들에게 좀 더 필요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권성철(경영대1)

## '선재수련' 통해 다른 삶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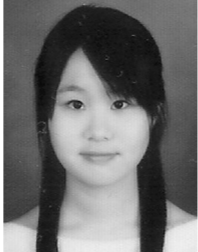
지난해 겨울 기말고사가 시작될 무렵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를 보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 인도 선재 수련 포스터였다. 많은 해의 봉사 포스터와는 사뭇 달랐다. 평소 인도를 가보고 싶던 차에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이라는 말이 끌렸다. 그렇게 참가 신청을 하고, 떨리지만 한 면접을 보고, 2박 3일간의 사전 교육을 받았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과 한 초로 동침,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를 더욱 가까이 알아갈 수 있었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김치로

접시까지 깨끗이 닦아먹는 것도 배우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일도 배워나갔다. 그리고 드디어 인도로 출발했다. 불가촉천민들의 마을 등계스와리에 있는 수자타카카데미에서 생활을 했다. 하루 1달러도 되지 않는 돈으로 생활 하는 사람들. 땅이 척박하여 농사도 짓지 못하고, 아이들은 신발조차 없이 맨발로 다녔다. 우리는 마을 유치원 벽화를 그리며 아이들에게 목욕도 시켜주고, 상처에 약도 발라주고, 함께 놀면서 생활을 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이렇게 하루 하루 지내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까지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살아오며 가지지 못했던 여유를 가지며 나를 돌아봤다. 내가 지금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만 가득 한 채 살아왔는지... 인도에서 내 모습이 100% 달라졌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새롭게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달리 나 이외에 남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눈도 배웠다.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이제 여름 선재 수련을 모집한다고 한다. 대학생이라면 한번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찾아 선재수련에 참가한다면 유익한 경험이 될 것이다.  
안병욱(사범대 역교3)

##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 향
월 (5/29)	김치불고기비빔밥(2000) 치즈돈가스 (2500) 쇠고기양송이볶음밥 (2000)	해물경단·쇠고기미역국 (2000) 치즈볶음밥 (2000) 참치김치덮밥 (2000)	된장찌개 (3200) 육개장 (3500) 닭갈비 (3500)	해호추고장찌개 (2000) 김치알탕800미역국 (2900) 징타국밥 (2500)
화 (5/30)	닭개장 (2000) 오삼불고기덮밥 (2000) 갈비경단백반 (2000)	돈갈비찌개 (2000) 치킨탕수 (2000) 신채비빔밥 (2000)	된장찌개 (3200) 버섯불고기 (3800) 튀김우동 (3500)	김치계란국 (2000) 볶음밥&사천탕수육(2900) 육개장 (2500)
수 (5/31)	선거일휴무	선거일휴무	선거일휴무	선거일휴무
목 (6/1)	제육쌈밥 (2000) 알무비빔밥 (2000) 참치김치찌개 (1800)	쇠고기국밥 (1800) 돈육피망볶음 (2000) 미트스파게티&볶음밥 (2000)	된장찌개 (3200) 제육쌈밥 (3800) 해물덮밥 (3800)	김치순두부국 (2300) 순살돈가스정식 (2900) 돈육김치찌개 (2500)
금 (6/2)	순만두국 (2000) 중국식볶음밥 (2000) 닭도리탕 (2000)	쇠고기미역국 (2000) 쇠고기키레라이스 (2000) 돈육강정 (2000)	된장찌개 (3200) 돌솥비빔밥 (3500) 돈육장조림 (3500)	우거지된장국 (2000) 묵채비빔밥 (2900) 오징어섞어찌개 (2500)



## 학생논단

오 나 리  
경영대 정보관리2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스승을 중시하여 임금과 부모와 스승은 같다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요즘 기사들을 보면 이러한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교사와 관련된 부정적 사건들이 이슈화 되고 있다.

스승의 날에는 존치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하여 전체 학교의 66%가 휴무를 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존치수수금지법'을 만들어 존치를 주는 학부모를 처벌하고 받은 선생에게는 금액의 50배를 내게 한다는 기사는 우리 교육 현장의 참담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학부모의 거센 항의로 교사는 무를 풀고, 편식을 고치려던 영양사는 쫓겨났다. 교사끼리 서로를 맞고소하고, 교장

이 여교사를 성추행하는 일 등, 이 많은 기사들은 이번 한달에만 나온 것들이다.

이러한 사건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학벌의 최상위 그룹이 교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유일한 국가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기업이 호황을 누릴 당시 학벌의 최상위 층의 인재들은 기업이 가져갔기 때문에 80년대에는 교사라는 직종의 이직률이 7%~8%나 되었다.

그러나 요즘의 실업률 저하현상으로 경쟁이 치열해 학벌의 최상위 그룹이 교직에 종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규정 시험만 통과하면 선생을 시켜 주고, 그러한 선생들은 교직을 생계의 수단으로만 삼기 때문에 과거의 '스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학부모들과, 교사간의 갈등이 벌어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기직종 중에 하나가 교사이다.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률이 낮은 우리 사회에서 교사는 안정적인 월급과 좋은 환경, 그리고 휴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 우리시대 일그러진 '스승'의 얼굴

때문에 진실로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해당한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는 학생에게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다분히 도덕성이 결여된 경우도 있기 마련이고, 학부모들은 이러한 교사를 알고 자기자식만이 중요하다는 그릇된 이기주의로 선생님에게 존치를 쉽게 내밀곤 한다.

학부모들은 현재 교사들이 생계의 수단으로 교직을 선택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무슨 일만 터지면 과거의 '스승'이라는 잣대를 교사에게 내미는 것도 갈등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사회 풍토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불미스러운 교사의 전문성 결여 때문이라 학부모의 치맛바람이 과하다. 요즘 학생들이 버릇없기 때문이다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학부모, 학생, 교사 중 단 한 집단만의 잘못일 수 있을까?

학부모, 학생, 교사 서로간 존중의 부족과 교사의 전문성 결여, 그러한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성 결여, 학교보다는 학원을 중시하는 학생들의 교사의 비 존중 경향, 이 모든 것들은 맞물려 일어난다.

우리는 쏟아져 나오는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히 하나의 국면만 보고 논할 수 없다. 하나의 사건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심층적 바탕을 우선시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덧 스승의 날이 있는 오월이 지나고 있다.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사회의 전반을 이루고 있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 참스승들이 더 많다.

스승의 날이 지난 아직까지도 스승을 찾아가지 못했다면 오월이 다 지나기 전에, 자신의 오랜 한 송이의 꽃으로 제자의 모든 마음을 알아주는 참스승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를 보내보자.

어쩌면 그 한 송이가 오월 한 달 부정적 사건들로 피해받은 참교사의 피곤한 마음에 따뜻한 빛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 독자 사진첩

나는 예전부터 남의 허물은 잘 보지나 나 자신의 잘못은 잘 알지 못했다. 따라서 나 자신의 정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처음부터 한 번에 변화하리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노력한다면 변화되리라 생각한다. 말의 씩씩이와 기본 행동에 서부터 신경을 쓰고 하나하나 바꿔간다면 남들에게 좀 더 필요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권성철(경영대1)

## 보리수

### 동국인(東國人) 마음의 타임캡슐

지난 해 화재로 전소되었던 양양 낙산사의 공중사리탑(空中舍利塔)을 보수하던 중 사리가 나오고 청동함에 서 나온 봉안문에 의해 탑의 조성 시기가 1692년(조선 숙종 18년)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450여 년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시대 미이라가 경북 청도에서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3~4백년 이상 묻혀있던 비밀의 문이 열리면서 과거의 진실이 현재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환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불상을 봉안하면서 부처님 몸에 모신 복장물(腹藏物)에도 발견되는데, 이는 현대사회에서 인위적으로 현재의 다양한 사회상을 먼 훗날 후손에게 전해줄 요량으로 제작하는 타임캡슐(time capsule)을 연상시킨다. 1938년 뉴욕 만국박람회 때는 특수합금 용기에 만년필, 시계, 담배, 각종 곡물, 공업재료, 책·백과사전, 마이크로필름 등을 넣어 밀봉하여 지하 150미터 깊은 땅속에 묻고, 5천년 후인 서기 6939년에 개봉하기로 하였다. 1994년에는 서울 정도(定都) 6

백년을 기념하여 보신각 종 모양의 타임캡슐을 묻고 정도(定都) 1천 년인 2394년 11월 29일에 개봉하기로 한 적이 있다. 또한 지난 5월 12일 에베레스트 단일팀 횡단에 세계최초로 성공한 우리 동국대학교의 박영석 대장이 건학 100년 기념 동판과 타임캡슐을 정상에 올려놓기도 하였다. 요즘은 학교나 회사에서 10년 혹은 20~30년 후에 자신들이 직접 개봉하기로 하는 단기 타임캡슐을 묻기도 한다. 캡슐을 묻은 건 현대인들이지만 캡슐을 열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일은 후대인들의 몫이다.

우리 동국인(東國人)은 의상스님 법성계의 한 구절처럼 무량급(無量劫)을 일념(一念)에 품고, 일념을 무량겁에 회향하는 이심전심(以心傳心) 타임캡슐을 마음에 묻어가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악(東岳) 캠퍼스에는 동국인(東國人) 저마다의 마음 타임캡슐이 시시각각으로 매설되고 있다. 강의실, 도서관, 연구실, 실험실, 정각원, 만해광장, 불상 앞, 잔디밭, 청춘단, 충무로 거리마다에...

이 학 주  
사범대학부속여교 교법사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상세한 축제 정보 유익 대학생의 본분 돌아본 계기 제공

지난호 동대 신문은 대동제와 학내·외의 소식들로 가득 차 있었다. 덕분에 학생들은 캠퍼스의 낭만과 추억을 담아낼 축제의 현장으로 하나 들 참여할 수 있었다.

목적 대동제 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축제 기간동안 방황하던 이들에게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주었을 것이다. 그 중 서울 락 페스티벌을 우리 학교 정서에 맞는 관점으로, 만해 한운은 스님의 말씀에 빚대어 해석한 발상은 돋보였다.

뜨거운 축제의 열기 속에 있고 있던 '총대위원회 선거와 총여학생회 선거'에 관한 기사, 여론 마당의 서울대 한총련 탈퇴 관련 글, 도서관 이용 에티켓 관련 글은 대학생으로서의 본분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신임이사장 '영배스님'과의 인터뷰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동국 100년의 발전을 위해 우리 학교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비교적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할 이사장의 경영철학과 의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좋은 기사였다.

또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강좌'의 실태를 기술하여, 평소 알 수 없었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다. 하루하루 교내 사이트에서 일일 식단을 점검하던 나에게 '금주의 식단'은 그런 수고를 덜어주었으며, 예비군 훈련의 유익한 정보는 복학생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동아내의 슬자리에서, 때론 때마곤 여름 햇볕을 가려주는 존재로 항상 우리의 함께하는 동대신문!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막연히 신문 기사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내 신문에 대한 더 높은 관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한영(사범대 수교3)

## 여학생실 성폭력 상담 및 교육 안내

- ◇ 성폭력 상담을 진행합니다.
  - 여학생실에서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학내 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성폭력 상담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 상담, 성폭력 신고 및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하며, 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전문가 특강을 통해 보다 평등하고 상호존중적인 대학 내 성문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 성 윤리위원회에 관하여
  - 성폭력의 예방과 사건의 원활한 대책수립을 위하여 성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여학생실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학생처장, 학생상담센터장, 교원·직원·학생을 포함한 학내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성 윤리위원회는 사건이 접수된 경우 성폭력 사건의 조사결과확인,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당사자간의 합의 중재, 피해자의 법률적 구제수단에 관한 지원 결정, 기타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합니다.
- ◇ 성폭력이란?
  -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음란전화 등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해지는 성적 언동 역시 성폭력에 속합니다.
  -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성폭력으로 인한 행동태역도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 ◇ 신고와 상담은 어떻게 하나요?
  1. 신고접수 : 상담실에 전화, 메일,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접수
    - \* 신분 및 내용에 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 \* 익명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접수 및 사건내용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건조사 : 피해자 조사, 피신고인 조사, 관련인 조사
  3. 심의의결 : 성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성폭력여부 판단, 사건조정
  4. 사건처리 : 성윤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
    - 학칙에 따라 징계하거나, 공개사과, 반성문 제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봉사활동 등의 조치
- ◇ 여학생실로 문의하세요...
  - 성폭력 상담(대학 내 성폭력,데이트 성폭력 등)
  - 성희롱 예방교육(전체 및 학과 별 예방교육 실시)
  - 사건 접수, 조사와 처리
  - 성 윤리위원회 개최
  - 전문가 초청 특강개최
- ◇ 상담 전화 : 여학생실 2260-3058 (상담팀 김현정)

대학생이 읽어야 할 고전 ⑦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시대를 초월한 개혁의 청사진과 시사점 제시

아담 스미스(A. Smith)가 스코틀랜드 계몽사상을 선구한 도덕철학자이자 으뜸가는 고전경제학자임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경제학에 공헌한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그린 사회질서에 대하여 스스로 어떤 도덕적 평가를 내렸는지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글은 그 당시 정경유착과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아담 스미스의 사상과 고전 경제이론을 국부론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한다.

고전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맬서스의 '인구론', 리카도의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상 계보상으로 보면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본론'을 저작한 칼 맑스도 넓은 의미에서 고전경제학파로 분류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자본주의의 통렬한 비판자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의 핵심을 이해하고자 고민했었으며 특히 '국부론'과 '자본론' 사이의 이론적 계승과 단절이란 이율배반적인 문제를 놓고 저절로 고민했기 때문이다. 자본론이 정치경제학 비판이란 부제를 달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고전경제학의 저작은 그 당시 영국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답을 하려는 노력을 집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사상적 원류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부론은 고전 중의 고전이다. 그런데 200여 년 전에 영국의 중상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국부론을 세삼 연구한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이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이 1997년 말에 외환위기를 맞아 사회와 경제의 구성구석에 시급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문은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전경제학이란 시대를 초월하는 사상과 이론의 보고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경제사상과 관련된 문헌을 읽게 되면 그 당시 사상가들이 고민했던 개혁과제들이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실문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데 새삼 놀라게 될 것이다. 국부론의 탐구는 학문적 거북인 저자의 문제의식과 사명감 그리고 사교의 전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과 범세계적 지식·정보화의 물결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의미하는 바를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세련된 추론 방법을 터득하는 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받게 될 것이다.

스미스는 그가 소망하는 사회질서를 '완전한 자유의 사회'라고 불렀다. 국부론에서 그는 사회구성원 각자가 스스로 선택한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찬양했다. 이러한 자유의 부신들이 바로 사회체제의 총체적인 선으로 되돌아오며 가난한 절대 다수를 번영의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자유 사회의 경제적 동인을 찬양만 하지 아니 하였다. 개인적 부의 추구를 위한 본능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갖는 생산력의 힘을 인정하고 찬양 하면서도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으려는 중상주의의 제제는 도덕적으로 공감을 수 없다고 보았다. 세간에는 종종 아담스미스가 자본가의 이익만 옹호하는 사상가로 폄하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부론 제1권에 다음 인용문을 그가 품었던 문제의식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국명하게 보여준다.

"어떠한 사회라도 그 구성원의 대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 ……(중략)…… 노동 빈민 즉, 국민의 대다수가 가장 행복하고 안락하게 보이는 것은 사회가 이미 충분한 부를 획득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사회가 부를 점점 더 획득하기 위하여 전진하고 있는 진보적 상태에 있을 때이다. 노동민민의 상태는 부가 정체상태에서 어렵고 쇠퇴사회에서는 비참하다. 진보하는 사회 상태는 실제로 있어서 사회의 모든 계급이 유쾌하고 즐거운 상태이다. 정체적인 사회는 활기가 없고 쇠퇴적인 사회는 우울하다."

여기에서 국부론의 사상적 기초를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국부론은 자연적 자유의 체계(자연법사상)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곧 '보이는 손(국가)'인 정의의 법과 원칙의 지배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인 시장질서가 국부증대와 공평한 소득분배라는 공동선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그 당시 시대사조인 중상주의를 신봉하는 부패한 권력을 매개로 소수의 거대 상인과 대자본가들이 누렸던 독점과 배타적 특권을 옹호하는 기존체제를 청산(제체개혁)하지 아니하고서는 더 이상 시장이 다수(서민대중)의 권리에 봉사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꽃을 피우려면 무엇보다도 정부가 먼저 특정의 제도적인 틀을 고안해야 하고 또한 과거의 생산양식을 주도했던 뿌리 깊은 전통과 지배를 탈피하여 사유재산, 자유노동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체제란 제도의 틀 안에서 누구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직업 노동을 통하여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데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경제 성장이다. 경제 성장이란 노동생산성의 지속적 향상이다. 이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이 바로 사회적 분업이며 분업의 정도는 시장의 크기에 달려있다. 시장이 클수록 분업과 교환의 이익이 증진되며 그 결과가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이고 인간사회 번영의 기반이다.

인간은 사회적 분업인 직업노동과 시장 교환을 통하여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생활도 크게 윤택해 질 수 있다. 예컨대 내가 입고 있는 옷 한 벌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한 분업의 산물이 모여서 시장에 통하여 나에게 전달된다. 내가 입고 있는 책 한 권도 수많은 전문가의 생각이 모여서 보다 나은 생각을 형성하고 이러한 저자들의 작품이 시장을 통하여 내가 읽고 배우며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 받는다.

풀어 말하면 세계의 만민은 실로 엄청난 연기의 세계 속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어찌 대자본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사회과학에서 이러한 연기의 세계는 사회적 분업과 협동과정인 시장이 교환 질서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시장에서 직업노동은 개인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이익추구 행위이지만 그 결과는 이타적이다.

이렇게 보면 국부론은 단순한 경제이론서이기 전에 국부에 관한 혁신적 사상서이자 사회개혁의 지침서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분업과 협동질서, 나아가 상생의 질서원리를 보다 정교한 이론으로 재구성한 것이 바로 후생경제학의 두 가지 정리란 점을 상기하면 국부론의 현대적 의의는 자명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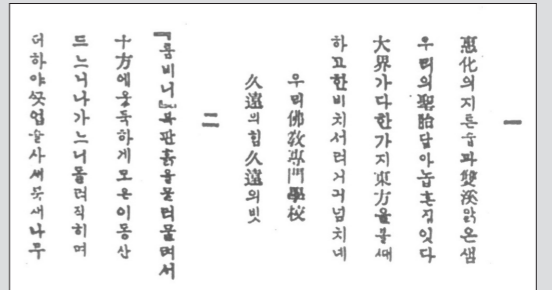
장 오 현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이야기 동국 100년사

전문학교 설립의 꿈 실현

⑧ 중앙불교전문학교로 승격



'일광'지에 실린 교가

불교전문학교 설립에 아쉬움을 갖고 있던 불교계는 전문학교 승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1930년 1월 8일 전문학교 승격신청서를 총독부에 제출하였고, 그해 4월 7일부터 전문학교 승격을 인가 받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등전문교육기관 설립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전문학교 승격이 정식으로 인가되자 중앙교무원은 교명을 '중앙불교전문학교'로 정하고, 문과 중심의 단과 교수체제를 갖추었다. 불교학을 기반으로 하되 문학·철학·사상 등을 주요 교과로 편제하고, 법과·특과·선과(選科)를 두었다. 수업연한은 각 3년이었으며, 학생정원은 150명이었다.

학교 측은 정식 인가를 받은 지 9일 만인 1930년 4월 16일에 불교전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입시험을 실시하였다. 또 4월 21일에는 첫 신입생들을 모집하여 4월 25일에 개교하였다. 이로써 중앙불교전문학교 및 보성전문학교와 더불어 국내 3대 고등교육기관으로 등장하게 된다.

1931년 8월 17일에는 문부성에 고등학교 고등과 및 대학 예과(豫科)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학교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여 이듬해 5월 31일자로 이를 지정 받았다. 따라서 졸업생들은 고등시험(고등고시)에 응시할 때 예비시험을 면제받는 특전을 누리게 되었다. 또 1934년에는 김영수 교수가 제안한 신실·자애·협심·도세를 지도정신으로 정하였다. 이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동국대학교의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학생들은 전문학교 승격을 계기로 재학생만으로 구성된 학생회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학생회가 자치조직으로 독립함에 따라 교수진과 졸업생들까지 회원으로 참여했던 교우회는 동창회로 성격을 바꾸었다. 학생회는 서무·종교·학예·음악·체육 등 5개부를 설치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쳤는데, 제2호까지 발간되었던 '일광'을 1930년 12월에 속간하여 1940년 1월까지 제10호를 펴내었다.

학생회 활동 중에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었던 '전조선 전문학교 학생운동대회'가 있었다. 1930년 12월 16일 천도교기념관에서 열린 첫 대회에는 무려 1,300여 명의 청중들이 몰려들어 대성황을 이루었다. 또 음악부는 1932년 9월 24일에 천도교당 등을 빌려 '중추(中秋) 음악대연주회'를 개최하고 음악과 연극, 시 낭송회 등을 열었는데 이 행사는 오늘날의 대학 축전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용 범  
소설가·동국 100년사 대표 집필자

yyoonjae@dongguk.edu

연구소를 찾아서 - ⑦ 일본학연구소

국내 최초 설립 ... 상생위한 연구 매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처럼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국내 일본학연구의 초석을 다진 연구소는 바로 우리학교 '일본학연구소'이다.

분래,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로 70년 초중반까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1979년 9월 일본학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일본학연구소에서는 크게 △국제 심포지엄 개최 △석학 초청 강연회 개최 △기관지 '일본학' 발행 △일본학 연구소 '총서' 시리즈 발행 등을 하고 있다.

우선 국제 심포지엄은 오는 10월 횡수로 38

회를 맞이한다. 이 자리를 통해 최근 정상적이 지 못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사적 현안문제와 한일 관계 상생에 대한 연구자들의 학술 발표가 이뤄진다.

또한 석학 초청 강연회에서는 외국 일본학연구계의 석학을 초청해 강연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지난 4월 열린 중국사회과학원 장립봉 일본연구소장의 '중일 관계와 동북아 협력'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 대한 반응이 특히 좋았다고 한다.

더불어 기관지 '일본학'과 일본학연구소 '총서' 시리즈를 발행하기도 한다. '일본학'은 81년 조판 발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24집이 발행됐다. 이는 국내 일본학 전반에 관한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한 것이며 한·일 양국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논문을 테마별로 모아서 국제 심포지엄 발표 내용을 다룬다. 일본학연구소 총서 시리즈는 2001년부터 발간되어 지금까지 총 5권이 나왔다. 일본잡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나 외부에 정당한 원고, 연구원들이 직접 작성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시중에 출판되어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작년 4월에는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와 교류 협정을 맺었다. 이번 협정은 일본 등 동북아시아 한·중 공동연구를 위한 큰 밑거름이 되었다.

오석운 전임연구원은 "현재는 일본 규슈대학



과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며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일본 국제 교류 기금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며 "앞으로 한국 학술진흥재단에도 프로젝트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명실상부하게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일본학연구소가 연구영역을 더욱 확장시키고 수준 높은 연구를 끊임없이 수행하기를 바란다.

<윤>

6월 영화감상 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다매체시대에 영화를 감상하고 그 작품과 관련 텍스트를 비교 토론함으로써 영상문화의 이해를 높여 학생들의 독서의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 시키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6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이란 : 한 가지 테마를 정해 관련 도서들을 읽은 후 영화나 DVD를 단체관람하고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 2. 일 정 : - 일 시 : 6월8일(목) 오후3시-6시 - 장 소 :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2층) A/V실 - 진 행 : 문예창작학과 장영우 교수 - 선정영화 : 오발탄 / 유현목 감독 1961년작 - 관련도서 : 오발탄 / 이병선 지음 1969 - 정 원 : 10명
- 3. 신청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신청순으로 모집하며 영화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 4. 유의사항 : 신청자는 관련 도서를 필히 읽어와야 하며, 영화감상 후 바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영화감상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진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제1회 공과대학/정보산업대학 학생 프로젝트 작품 공모전

공과대학/정보산업대학 재학생 (개인 또는 팀)

2006년 5월 29일(월)~6월 16일(금) 17:00까지

2006년 10월 9일(월)~10월 13일(금) 17:00까지

각 대학 행정지원실 (상세내용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동국대학교 공과대학/정보산업대학

연락처 : 공과대학 행정지원실 이상원 과장 (tel : 02-2260-3330)

건학 백주년 기념 생태환경논문 공모전

- 1. 공모 대상 : 동국대학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2. 논문접수 및 마감일 : 9월 11일(월) ~ 9월 15일(금)
- 3. 당선작 발표 : 9월 29일(금) (홈페이지 게시 및 당선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4. 당선작 공개발표회 : 10월 13일(금) 오후 2:00 ~ 5:30
- 5. 논문제출 및 접수방법 : - 논문 1부(요약 및 연락처 포함)와 디스켓(또는 이메일)제출 - 방문접수(접수시간: 오전 10:00 ~ 12:00, 오후 2:00 ~ 5:00) -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 6. 논문 내용 : 불교생태사상, 환경기초 및 공학, 자연환경, 환경정책 등 생태·환경 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논문형식으로 정리하여 투고
- 7. 시상내역 : - 대상(총장상) 1팀: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대학원생: 최우수상 1팀(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1팀(상장 및 상금 50만원) - 대학생: 최우수상 1팀(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1팀(상장 및 상금 50만원)
- 8. 문의 : 전화 : 02)2260-8648, FAX : 02)2260-8649 홈페이지 : www.eco-forum.or.kr 이메일 : ecoforum@dongguk.edu 주소 :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계산관 104호 생태환경연구센터

생태환경연구센터



# “우리는 끝났다! 동악속으로”

## 새로운 프로그램과 부쩍 커진 규모로 동국인들을 아우른 축제의 장

지난 23일부터 3일간 동악에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었던 ‘2006 목막대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제38대 총학생회(회장=정성진·경영4, 이하 총학)주최로 열린 이번 축제는 ‘클리면 오라’를 모토로 삼아 동국인들이 한 데 어울리는 자리로 거듭났다.

대동제 기간 내내 팔정도에서는 예년에 비해 풍성한 프로그램이 많아 알찬 기획력이 돋보였다. 이곳은 학생들의 유동이 많아서 각 단과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었다. 행사는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동국바자회, 연예인동문·교직원 애장품 경매, 동국포스트 플레이, 축제속의 즐거운 취업 등으로 꾸러졌다.

대운동장에서 △23일=목막대축제 개막식 △24일=서울 락페스티벌 △25일=백상 응원대제전으로 축제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나갔다.

이번에는 무대와 학생간의 ‘근접성’을 높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 총학 서포터즈 외에도 해병대전우회·체육교육과·검도부가 질서유지를 책임졌다. 작년에 총학 자체적인 진행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달리 학생처를 통한 봉사활동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락페스티벌은 중앙당에서 1부 행사를 마련해 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음악으로 알리는 등 실속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더불어 지난해 소음 때문에 행사가 중단된 것과 달리 강의실에 ‘양해의

글’을 부착하고 교수·교직원들에게 사전양해를 구해 민원 없이 무사히 마쳤다.

마지막 날에는 본관 중앙당에서 손범수의 ‘꿈이 있는 삶’ 초청공연회가 있었다. 이는 노는 분위기로만 흐르기 쉬운 축제 속에서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축제는 각 단과대 행사 역시 세롭고 이전보다 부쩍 커진 규모로 눈길을 끌었다. 공대는 올해 처음으로 ‘엔조이 엔지니어’ 즉, 즐기는 공대인을 모토로 24일부터 이틀간 만해광장에서 가요제, 동아리 공연 등을 펼쳤다. 이로 인해 공간부족을 문제로 열리지 못했던 행사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로 거듭났다. 사범대의 경우도 작년까지는 별다른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반면 올해에는 25일 6·15공동선언 김밥말이 대회, 북학생 족구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예술대의 영화와 학생들이 주체가 된 영화제를 비롯한 단체졸업기 역시 이전에는 없던 행사들이다.

한편, 축제 속에서 대기업 판촉으로 인한 ‘상업성’을 지울 수 없었다는 평도 있었다. 작년까지는 스폰서가 못 들어왔으나 올해는 규모가 큰 백주년 행사인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훈희(경영4) 총학 사무국장은 “상업성이 짙은 것은 최대한 배제했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취사선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참여 유도를 위한 다수의 초대 가수 등장이나 첫날 내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V.I.P석

통제가 뒤늦게 이루어져서 일찍부터 기다린 학생들이 행사 중간에 자리를 피해줘야 했던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불교대, 경영대 등 단과대 단위의 행사가 없는 곳도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와 관련해 총학의 한 관계자는 “학교 홈페이지 ‘설문’을 통해 학생들의 축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행사를 기획할 때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과 학생이 주체가 되는 축제는 매년 축제마다 되풀이되는 평가 지표이다. 이번 축제를 성황리에 치러낸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는 고민으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 달하나 천강에

### 캠퍼스의 五月斷想



최봉석  
법과대 법학과 교수

오월은 분명 아름다운 계절이다. 녹음의 채기(彩氣)가 짙어지고 꽃들도 강한 색깔을 뽐내듯이 사람들의 활기도 화려하리만큼 왕성해진다. 사람도 자연도 사회도 넘실대는 활력을 뿌리치기 힘든 시기임에 분명하다. 창밖에서 울려대는 크라이닝(Crying Nut)의 강렬한 락사운드(rock sound)와 열광하는 학생들의 환호는 기운찬 초(初)학자의 학습열마저도 압도하며 몇 번이고 창밖을 넘겨다보게 만든다.

오월, 무표정한 모습으로 벽 한쪽을 채우는 달력의 다섯 번째 장이기보다는, 분명 다른 특이점이 발견되는 달(月)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 건학100주년기념축전, 대동제... 그야말로 축제의 연속이다. 음악이 흐르고 축화가 넘쳐나고 흥분과 기쁨이 충만된 시기. 계절의 여왕, 지금의 오월은 ‘Oh!월’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1961년, 1979년, 1980년, 1986년의 오월은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5·16, 5·17군사쿠데타, 5·18광주민중항쟁, 6월항쟁의 시작... 우리 세대가 경험한 한국현대사의 과거 오월의 많은 시간은 피와 눈물, 폭압과 구호로 채워져 왔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에 대학인은 사회의 책임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피와 땀으로 그 현장을 지켜왔다. 그 오월은 ‘(嗚)월’, 아니 ‘(으)월’이었을 것이다.

5월 17일 수업시간에 “다음 주에는 야외수업 해요”라는, 아니 “주점수업 해요”라는 당찬(?) 제안을 외치는 학생들의 상기된 불에는 분명 현재의 ‘Oh!!월’만이 묻어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벼움(?)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 모든 ‘(으)월’과 ‘(으)월’을 거름으로 하여 이 새롭고 화려한 ‘Oh!!월’의 꽃이 피어났다고 싶으니 말이다. 구태여 이 푸른빛 오월의 일부를 과거의 빛바람으로 채워둘 필요는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문득 환청처럼 머릿속을 맴도는, “매 맞고 감방 가는 형제들 있는데 XXX YYY야 쌍쌍파티가 뭐냐”라는 노랫말이 과거 ‘민주투사’를 자칭했던 48세대들에게 마저도 이미 전설같은 부담스러움으로 체감되는 시절이 되고 말았으니 말이다.

세계 초유의 대국으로 세계를 주무르며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구가하는 미국에 대해 그들의 지난 역사에 나타난 여두움과 부조리를 철저히 지적한, 하워드진(Howard Zinn)은 “미국이라는 열차는 현재라는 레일을 달려 끊임없이 과거로 만들며 미래라는 종착역으로 질주한다”라며 현재와 과거의 관계를 살펴한 바 있다. 비록 인식하지, 의식하지 못한다 해도 현재는 분명 과거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동일체이다. 과거(달려온 길)를 안다는 것은 현재(현재의 위치와 방향)를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5월에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기쁨이 공존한다. 하지만 지금 캠퍼스의 5월에는 그 오월의 반쪽만이 넘실대고 있다. 나머지 반쪽의 오월에 대한 탐구로 채워진 도서관의 서가나 책상, 다른 학습의 장을 발견하기 어렵다. 열람실에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의 모습으로부터라도 그 또한 ‘찰나의 과거를 학습하는 모습’이라는 괴변적 자위감이라도 가지고 싶어진다.

### 취업지원센터 활용Tip 취업특강과 취업캠프 100% 활용하기

##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방학에도 계속돼

### 전문가 특강·커리어우먼 아카데미·취업아카데미 등 준비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매년 취업특강과 취업 행사를 수시로 열어 시기별로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성별·학년별·학기별·업종별 등 유형별로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풍성히 제공하므로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우선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 특강’이 있다. 금융업, 유통업, 경영기획, 마케팅, 인사노무 등 업종/직종별로 실무자를 모셔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다.

4월 26일부터 매주 화, 수요일에 실시한 이

특강은 6월 중순에 1학기 과정을 마치게 되는 데 5월 30일, 6월 8일, 6월 13일에도 아직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취업지원센터로 방문하여 꼭 신청하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 바란다.

두 번째로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다. 여대생의 진로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자기진단, 입사서류작성법, 면접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담당, 컨설턴트, 최근 대기업에 입사한 여성동문이 참여한다.

3일간 집중적으로 특강과 클리닉을 받게 되

는데 2기까지 모집 및 시행되었고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하는 3기는 현재 모집중이다. 취업지원센터에서 방문신청 후 참가하면 된다.

세 번째로 ‘서류/면접 집중 특강 프로그램’이 있다. 서류작성법과 면접준비에 대해 특강보다는 개인상담과 개인실습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참가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상반기에는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실시되었다. 하반기(9월예정)에도 동일한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네 번째로 ‘재학생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HRDP) 취업캠프’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3박4

일간의 합숙프로그램으로 방학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리더십, 자신감 강화, 창의력, 취업역량 강화, 입사서류작성 및 면접 Role Play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캠프를 통해 실시하며 물론 대기업 인사담당과 우수한 강사진, 컨설턴트로 구성된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취업지원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알릴 예정이며 모집인원이 많지 않으므로 가능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취업아카데미’가 6월말경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취업지원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상이하므로 자신의 의도에 맞게 소신있게 참가하고 책임있게 참여하여 정보수집과 취업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주기 바란다.

장지홍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팀 상담원